

2018 SoLE Conference 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□ 목 적: 경쟁적이고 명망있는 SOLE 참석을 통해 KDI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세계적인 노동경제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,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에 기여

□ 출장지: 캐나다 토론토

□ 출장자: 한요셉 부연구위원

□ 기 간: 2018년 5월 3일~ 5월 7일 (3박 5일)

○ 출장일정

- 5월 3일: 출국(인천→캐나다)

- 5월 4-5일: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

- 5월 6일: 귀국(인천→캐나다)

II. 주요 활동 내용

□ 노동경제학의 다양한 분야 중 대학교육 분야 관련 세션에 참석하고,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함.

□ 아래 내용은 참가한 세션의 여러 논문 발표에 대한 요약임.

□ 발표자: Daniel Kreisman (Georgia State University)

○ 발표 논문 제목: Employer Learning, Labor Market Signaling and the Value of College: Evidence from Resumes and the Truth

-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있는 이력서 파일들을 수집하여 출신 고교 및 이름 등을 통해 대학교육 관련 행정 데이터와 매칭시키고, 29%에 달하는 이력서에서 대학에서 중퇴한 경우 해당 학력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함.
- 이는 표준적인 노동시장 모형의 가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의 교육 수준을 완전하게 관측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한편, 이러한 누락 여부는 학교 수준, 재학기간, 경력 등의 변수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종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.
-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러한 누락 여부는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, 대학교육이 인적자본보다는 신호기제일 가능성을 시사함.

□ 발표자: Sandra Black (University of Texas at Austin)

○ 발표 논문 제목: Apply Yourself: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College Application

- 인종 및 민족간 대학 등록률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텍사스의 모든 고등교육 지원자들에 관한 데이터 (ApplyTexas)를 활용
- 특히 지원단계에서 인종이나 민족간 정보력의 차이가 인과적 영

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텍사스의 “상위 10%” 규칙을 활용

-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경우 비슷한 고등학교 및 성적 등에도 불구하고 대학지원율이 낮으며, 흑인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대학지원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이는 성적 등이 낮은 경우에 집중되었고, 아시아계 학생들의 경우 보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.
- 대학의 학생 인종구성이나 고등학교 시절 경험 등이 지원 대학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발표자: Kevin Stange (University of Michigan)

○ 발표 논문 제목: Price Regulation, Price Discrimination, and Equality of Opportunity in Higher Education: Evidence from Texas

- 대학 등록금 규제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텍사스에서 등록금을 대학 자원에 맡긴 정책변화의 효과를 살펴봄.
-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는 동시에 전공별로 차등적 등록금을 부과하였으나,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들의 (졸업후 임금기준) 상위권 대학진학율은 높아짐
- 이는 규제완화로 인해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차별(price discrimination)에 나선 결과로 이해됨.

※ 학회 일정은 파일로 첨부함.